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31호> 2018년 12월 발행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과장 토쿠노 미츠루(徳野 満)

국민문화제, 전국 장애인 예술 문화제가 성대한 막을 내렸습니다. 약 2개월에 걸쳐 현내 각지에 서 개최되며 오이타 문화의 다양성과 깊이를 새롭게 알게 되신 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이타 대회의 특징 중 하나는 향토 음식 및 전통 예능도 함께 체험하는 ‘컬처 투어리즘’을 즐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이타의 풍부한 식재료를 활용한 식문화를 포함해, 현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오이타현 소식>

오이타현 축구 팀 트리니타 J1리그 승격

지난 11월 17일에 열린 오이타 트리니타와 몬테디오 야마가타의 시합이 ND 소프트 스타디움 야마가타에서 열렸습니다. 시합은 1:1 무승부로 끝이 났으나, 승점 76점으로 동점이었던 요코하마 FC와 마치다를 특실점차로 따돌리며, 2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오이타 트리니타는 6년만에 J1리그로 승격하게 되었습니다.



<벳푸시 소식>



What`s up, OITA! 11월호’(2018.11)부터 현내 각 시정촌의 소식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오이타시에 이어 이번 호는 벳푸시로부터 온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국민문화제, 전국 장애인 예술 문화제가 폐막>

국민문화제, 전국 장애인 예술 문화제가 11월 25일로 폐막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의 전시회 ‘아니쉬 카푸어 IN 벳푸’는 현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와주시는 등 약 5만 5천명이 관람객이 찾아주셨습니다. 분야별 사업으로는 ‘규슈 마칭밴드 제전’, ‘일본 축제 노래, 봉오도리 전국 대회’ 등 11개의 이벤트가 개최되었고 방문객 수도 1만명 이상을 기록하며, 모든 사업이 대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신 프로젝트 ‘벳푸시 학생 대동창회’ 개최 결정>



2019년 3월 23일, 벳푸 대학 · 벳푸 대학 단기 대학부, 벳푸 미조베학원 단기 대학, 리츠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 합동으로 동창회를 실시합니다.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운영단이 기획하며, 동창생을 비롯해 누구나 가볍게 참가해서 즐길 수 있는 ‘귀성’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내용은 웹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 <http://daidousoukai.gokuraku-jigoku-beppu.com/>

【벳푸시 문화국제과】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31호> 2018년 12월 발행

오이타 100% 즐기기! 유후인 스테인드 글라스 미술관

관광객으로 복적이기는 유후인 메인 거리에서 벗어나 유후다케를 배경으로 전원 풍경을 따라 걷다보면 붉은 벽돌의 유럽풍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유후인 스테인드 글라스 미술관’, 1996년에 개관한 일본 최초의 스테인드 글라스 미술관으로 1800년대 유럽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모아온 수집가가 유후인을 방문했을 때 이 곳의 풍경이 영국의 시골 풍경과 닮았다하여 현재 위치에 미술관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후인 스테인드 글라스 미술관’은 ‘닐즈 하우스’와 ‘성 로버트 교회’의 두 건물로 나뉘며,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외관은 영국에서 직접 수입한 벽돌로 지었으며, 내부의 가구 및 카펫, 커튼까지 스테인드 글라스의 분위기와 어울리도록 유럽에서 들여온 것으로 수집가가 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닐즈 하우스’ 1층은 매표소 및 기념품 가게와 두 개의 전시실, 2층엔 5개의 전시실이 있으며, 전시실의 모든 설명은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지만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어로 번역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술관 내에는 와이파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여행객이신 분은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실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국가 별로 작품이 전시 되어 있으며, 우아하고 고전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앤티크한 소품이 곳곳에 비치되어 있어 마치 유럽에 와있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세시대의 장인들은 글라스에 더하는 금속 산화물(유리의 색을 만드는 원료)을 찾는 데에 열중하며, 특색있는 색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하나의 작품 안에서도 장인의 역량에 따라 분위기와 표현이 가지각색이며 그 차이를 비교해가며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또 미술관에 전시되어있는 작품 중에는 현재는 해외 반입이 금지되어 더이상 외국에서 볼 수 없는 귀중한 작품과 당시 유럽에서 불던 일본 불을 반영한 작품까지 종교적 배경을 잘 모르는 분들도 즐겁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성 로버트 교회’는 당시 교회에 있던 스테인드 글라스를 전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미는 없지만 높은 천장과 자연광이 들어오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연출하는 엄숙하며 성스러운 분위기 덕분에 결혼식장으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식이 열리는 경우, 교회 관람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길 권장합니다.

- ▶ 입 장 료 : 어른 1000엔/초,중학생 500엔
- ▶ 영업시간 : 9:00~18:00(입장은 17:30까지)
- ※ 내부 사진 촬영 금지



오이타 100% 즐기기! 스테인드 글라스 액자 만들기 체험



유후인 스테인드 글라스 미술관에서는 체험 공방도 운영 중이기에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맞춰 스테인드 글라스로 액자를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액자 이외에도 거울, 미니 패널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무늬와 색상의 유리를 이리저리 조합해보며 고르고 난 후, 취향에 따라 추가로 장식할 옵션을 선택합니다. 모든 재료가 갖춰지면 장갑을 끼고 납땜 인두로 테두리를 용접합니다. 방법도 간단하고 직원분의 친절함 설명 덕분에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제와 함께 물로 깨끗하게 씻고 닦아주면 반짝반짝 빛나는 나만의 액자가 완성됩니다. 창가에 두었더니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스테인드 글라스 덕분에 더욱 특별한 느낌이 듭니다.

- ▶ 체 험 료 : 1,500~4,500엔 (입장료, 추가 옵션 별도)
- ▶ 체험시간 : 9:00~16:00 (최종 접수)

참고로 스테인드 글라스 체험은 직원의 외국어 대응이 어려우므로, 일본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